하나님 이름의 주가조작

(에스겔 36:1~38)

16.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18.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19.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20.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21.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이름의 주가조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이름의 주가조작'
주식투자에서 일어나는 주가조작을 흔히 작전(作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가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부당행위를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고, 자금력을 동원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고정시키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원하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망하기 직전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오너가 이 사실을 감춘 채 가지고 있던 모든 주식을 매도한 후에 파산신고를 해버립니다. 주가 자체를 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부

당행위에 속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부실한 기업의 주가를 싸게 마구 사들여서 주가를 올려서 사람들의 시선을 끈 후에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내는 수법도 있습니다. M&A를 통해 기업통합을 할 때에는 주식조작을 통해 상대기업의 주식을 폭락시켜서 헐값에 인수를 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흔히 말하는 작전으로써의 주가조작입니다. 본래 주가는 회사의 자산규모 사업현황 미래전망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외부세력들의 조작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든 행위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에서 '하나님 이름의 주가조작'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마귀는 오늘 하루도 지구에 사는 75억 명의 마음에서 조작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값어치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귀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주가조작은 오직 폭락으로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주식의 가격인데 하나님의 이름값이 폭락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삼성의 주가를 본다고 하면 삼성이라는 기업의 자산규모나 영업상황이나 미래전망 등이 고려되어서 한 주의 가격이 책정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도 고려되어야 하는 하나님 존재감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존재감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하루에 하나님의 이름을 백 번 불러도 하나님의 존재감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주가조작에 당하게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값이 폭락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나랏님 욕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임금님의 존재감이 이름에서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임금님 앞에 늘 서있는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임금님의 이름이 가지는 무게감은 백성들이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임금님 앞에 선다면 고개도 못 들고 무슨 말만 하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는 대답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대통령 욕을 어렵잖게 합니다. 대통령을 마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의 이름은 400~500조에 이르는 일 년의 국가예산에 사인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무게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무게감을 늘 눈앞에서 보고 있는 청와대 직원들이라면 대통령의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의 무게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무게감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무게감을 전혀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상황을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는 현실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주가조작을 하는 작전세력들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휴지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

요. 퇴직금을 다 털어서 주당 10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이것이 10원이 되었다면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주가조작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감과 사랑의 무게가 이렇게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서 큰일을 이루거나 혹은 이루지 못했다고 억울해하는 것은 사실 대수롭지 않은 문제입니다. 인생이 보람되기 위해서는 성공을 이루고 성과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의 가치를 되찾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 이름의 존재감의 무게가 실제로 얼마나 실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존재감의 무게도 느껴야만 합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이루는 것보다 보람될 수 있습니다. 굳이 성공이나 만사형통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부르는 하나님 이름의 존재감의 무게가 실리기만 한다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할 때의 무게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더러운 죄악 때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인관관계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더러운 죄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더러움은 깨끗함과 대립하는 상태입니다. 선민의 나라에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장소는 바로 성전의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는 곧 마음의 더러움을 진단해 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만 안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 유지해야 할 상태를 상징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온 이름은 곧 우리가 관심을 준 대상들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크기로 비어있게 지음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마음은 채워지기 위해 항상 흡입력을 발동시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비어있는 마음을 어떻게든 채우고자 합니다. 따라서 삶의 모든 행동은 결국 마음 채움을 위한 행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의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놓이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 기쁘고자 한다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으로 돈을 믿는 것입니다. 자녀가 형통하면 만족하겠다고 여긴다면 마찬가지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으로 자녀의 형통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수가 사라지는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잡는 대상은 사람마다 다를지언정 마음의 지성소에서 무엇인가를 붙잡는 것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본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담기 위한 장소로 지음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관을 짓습니다. 그

러나 마음의 문제는 마음 자체에서 해결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선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할 마음에 돈을 들여놓았다면 더럽혀진 것입니다. 마음에 다른 이름이 담기게 되면 이 더러움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더러워진 생각과 더러워진 감정과 더러워진 뜻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관계를 맺음을 통해 더러움이 퍼져나갑니다. 다만 이미 서로가 더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가족을 대하면 가족에게 오물을 묻히고 있는 셈입니다. 선민이 망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선민들이 망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에는 각 나라와 민족마다 고유의 신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의 힘이 세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번영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근동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유대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은 약한 신으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바벨론에서 섬기던 신들은 실존하는 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값어치는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주가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앗수르가 주변국들을 한창 정복해나갈 때에는 앗수르가 섬기던 신들의 이름의 값어치가 폭등했습니다. 그랬기에 선민들도 그들이 섬기던 일월성신을 좇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풍요롭고 강대했기에 애굽에서 믿던 우상들의 이름도 값어치가 폭등했습니다. 그러자 선민들은 또 애굽의 우상들을 끌어들여 섬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선민이 스스로 마음을 더럽힘을 통해 마귀의 주가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니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일마다 더러움이 묻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선민을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주식이 폭락해 휴지가 되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이름값은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또 선민이 망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본래의 값어치를 알 방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이방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온 선민들을 보면서 갖는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평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라는 말이 하나님 이름의 존재감을 생각한다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값어치가 제대로 평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을 예로 들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고작 15살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존재감의 무게를 실제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게감을 완전히 느끼는 것은 불가능했을지라도 적어도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라는 현실이 주는 무게감을 이겨낼 정도로 하나님의 무게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의 무게감을 느

꼈기에 골리앗을 티끌처럼 여길 수 있었습니다. 결코 자신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인 것은 진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미 다윗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처음 보았을 때에 그 위압감이 마음에 밀려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느낌으로써 골리앗의 무게를 새 발의 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도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거대하게 들어섰고 하나님의 이름의 주가는 폭락해 헐값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주가조작이 이루어졌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 홍해를 앞두고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고 뒤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이 우리 삶에도 일어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부르짖는 모습이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납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14~15절에 대답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부름에 있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앞을 가로 막은 홍해나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라는 문제가 티끌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의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감과 선민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주가조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값어치를 폭락시키는데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하는 일은 다윗과 모세처럼 하나님 이름의 무게감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감을 느끼기만 하면 삶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마귀의 주가조작을 쳐부수고 하나님 이름의 존재의 무게감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 26~27절에 나타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하셨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말씀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영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혼과 육을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마음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고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지정의가 활동하게 됩니다. 이 지정의의 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온 이름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걸 가지면 기쁘겠다, 이것이 없어지면 만족하겠다고 어떤 이름을 믿어서 붙잡는 것이 영이 하는 일입니다. 지정의의 방향을 정하는 믿음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영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대상들을 붙잡아서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 할 때에 영은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지정의로 이루어지는 말과 행동 또한 더러워지게 됩니다. 육체를 통해 만나는 것들 중에서 마음의 채워짐을 믿고 추구하였기에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본래 존재의 무게감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영의 상태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영이 바뀌면 마음도 새롭게 바뀝니다. 이것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굳었다는 것은 육신과 마음이 붙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만나는 것들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그 이름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육신과 분리되어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육신이 붙어버린 상태는 마치 장기들이 유착되는 것과 같습니다. 몸속의 장기는 접해 있지만 결코 서로 붙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의 유착이 일어나면 서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큰 병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굳은 마음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 남자 집사님 한 분과 여자 권사님 두 분이 강릉에 찾아오셨습니다. 남자 집사님께 십자가 생활화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쭈었더니 집사님이 다니시는 회사의 동료가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관습적으로 볼 때에 무척 불편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덧 마음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육신과 마음이 붙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새 영이 되어야만 합니다.
육신과 마음이 붙은 상태에서는 직장 동료가 행동을 달리 했더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그 대상이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그 사람의 이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더러워진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직장 동료가 들어온 나의 마음이 통째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새 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이 차지하게 된 마음이 통째로 죽었음을 고백함이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이유는 마귀는 날마다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문제로 여기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우자를 바꿔보려고 한들 내 마음에 행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좋든 싫든 배우자가 들어온 마음 자체를 통째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새 영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영이 되면 지정의에서 발생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도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마음의 지성소를 진단하고 더러움의 상태를 죽여나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이름 위에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감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이 일곱이라도 타인을 위해서 아들 하나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무게감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붙잡은 하나님의 이름에 실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의 지성소를 들여다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이 들어와 있는 것을 느끼면 내가 십자가에서 통째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매순간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이름의 존재감의 무게들이 실려 오기 시작합니다. 그 존재감의 무게는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존재감의 무게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만큼만 필요합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이 세상이 전혀 필요 없다고 느끼는 지점까지 입니다. 이 전환 포인트를 넘어가기 전까지만 하나님의 존재감의 무게가 내 마음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실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가 필요한 것이고 구약에서는 상번제의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 지성소에 비추어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이 들어와 있으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다른 이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들여놓은 마음을 통째로 십자가에 걸어 죽여야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빼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불교적이고 수련의 용어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함을 통해서 세상을 들여놓은 마음의 죽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돈을 주고 무엇을 사야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었다는 고백만이 필요합니다. 직장 동료가 나의 마음에 들어온 것을 보았다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를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전부입니다. 결코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반복하다보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감을 실감하는 삶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티끌처럼 여겨져서 날아가 버리게 되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가진 존재의 무게가 실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 골리앗 앞의 다윗처럼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의 무게감을 느꼈을 때에 골리앗이라는 문제는 초토화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귀에 의해 끊임없이 시도되는 마음 속 하나님 이름의 주가조작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파쇄 되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모세처럼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존재의 무게감을 실제로 느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